

교회소식

1. 오늘은 교회력에 따라 사순절 다섯 째 주입니다.
2. 다하나교회에 처음 오신 분과 방문하신 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3. 여름 가족캠프가 7월 1-2일(토/주일) 있고, 장소예약을 위해 신청을 미리 받습니다. 신청서에 등록해 주세요.
4. 예배 직후 2022년 결산안 처리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습니다.
5. 4월 온가족 예배는 4월 9일에 드립니다.
6. 교회로고가 최종적으로 마무리 되었습니다.
7. 생일을 축하하고 축복합니다.
 - 26일: 양현미 자매 / 김용헌 형제
 - 27일: 진희경 자매
 - 31일: 김다울 어린이

*다음주 예배봉사자

- 기도: 이건영 집사 / 번역: 최혜리 자매
- 4월 안내 및 봉사: 뿌나 목장

*교회 향후 일정

- 부활절 온가족 예배: 4월 9일

교회세운날 2017.6.11 2023-13 3월26일 (사순절 다섯 째 주일)



언제 어디서나
그리스도인

주일예배 : 매주 주일 오후 3시
수요기도회 : 매주 수요일 Zoom으로 오후 8시

3401 SALEM RD SW, ROCHESTER, MN 55902

Web : <https://mnrochesteroneheartchurch.com>
oneheartkoreanchurch.com

213-357-7614

예 배 순 서

인도자: 김경헌 목사

예배로의 부름과 기원 — 계 5:11-12 — 인도자

신앙고백 — 사도신경 — 다같이

찬양과 경배 — 찬양팀과 함께

기도 — 한혜경 집사

주일학교 이동 — 주일학교 학생과 교사

찬송 — 314장 내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 다같이

성경봉독 — 요한복음 12장 1-8절 — 인도자

설교 — 사랑하니 깨뜨립니다 — 김경헌 목사

봉헌찬송 — 317장 내주예수 주신 은혜(1,5절) — 다같이

봉헌기도 — 인도자

교회소식 — 인도자

파송찬양 —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 다같이

축도 — 김경헌 목사

목회 칼럼 / 걸으면 해결된다

날씨가 풀리니 여러 모로 좋습니다. 무엇보다 겨우내 추위 때문에 꺼려졌던 산보를 하니 좋습니다. 교회 주변의 길을 따라 가다보면 산 속으로 나 있는 길이 있습니다. 봄 햇살을 맞으며 눈을 감고 걷노라면 새 소리들이 유난히 크게 들립니다. 다양한 종류의 새소리인데 모두들 봄이 와서 신났다고 재잘거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스의 철학자 디오게네스는 “걸으면 해결된다.”라는 말을 남겼습니다. 로제 폴 드루아라는 사람은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걷기를 통한 사색의 힘에 있었다.”라고 말하며 걷기가 인간에게 있어서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참으로 그렇다는 생각을 걸으면서 많이 합니다. 걸을 때 몸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는지 모르지만, 개인적으로 걷기를 통해 많은 유익을 얻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걷기와 기도의 상관 관계는 매우 깊어 보입니다. 제가 가장 선호하는 기도 방법, 그러니까 하나님과 대화하는 방법은 걸으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산 속이나 숲속 아니면 잔디밭을 걸을 때 하나님과 깊이 접촉하게 됩니다. 얼마 전 3월 17일이 자신의 성일이었던 아일랜드의 성자, 성 페트릭(St. Patrick)은 숲을 무척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는 주기적으로 숲을 방문하여 며칠이고 그 안에 머물다 오곤 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성 페트릭을 상징하는 색깔이 초록색이 되었다고 하죠. 성 페트릭을 존경하는 아일랜드를 상징하는 새깔도 초록색이 되었구요. 숲 속을 걸으며 회복하고 충만해지는 것은 단지 저뿐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아는 분은 박사학위 논문 주제가 ‘걷기와 영성형성’에 관한 것입니다. 걷는 것이 우리 영성을 얼마나 풍성하게 해주는 것인지 해 본 사람은 이해할 겁니다.

오늘 걸으며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걷고 있다는 것은 내가 주저앉지 않다는 것이겠구나.” 주저앉거나 좌절한 사람은 걸을 수 없습니다. 서 있다는 것, 걷고 있다는 것은 살아있다는 증거고 희망 가운데 있다는 증거일 겁니다. LA에 있는 Getty Center라는 미술관을 방문했을 때 Giacometti의 “Standing Woman”이라는 조소 작품을 감상한 적 있습니다. 그의 대표적인 작품 “Walking Man”을 만들기 몇 년전 그는 서 있는 여인을 먼저 만듭니다. 중국에서 추방당한 지 몇 달이 안 되었고 어떨결에 미국까지 흘러온 상태에 있던 제게 서 있는 여인의 상은 많은 영감을 주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서 있어보이지만 그는 주저앉아 있진 않았습니. 걸을 준비를 하며 재기를 노린거겠죠. 직립, 그것은 사명을 달려가기전 숨고르기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부활(復活)이라는 헤라이어 ‘아나스타시스’와 라틴어 ‘resurrection’ 모두 ‘다시 일어선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활은 다른 게 아니라 주저앉았던 그 자리를 털고 일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만물이 다시 제 자리로 돌아오는 이 봄에 주님의 부활을 맞이한다는 것은 의미하는 바가 큼니다. 다시 일어나 걸으시겠어요? 걸으면 해결될 겁니다.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함께 걸으시는 주님 계시니 다시 일어나 걸어요.